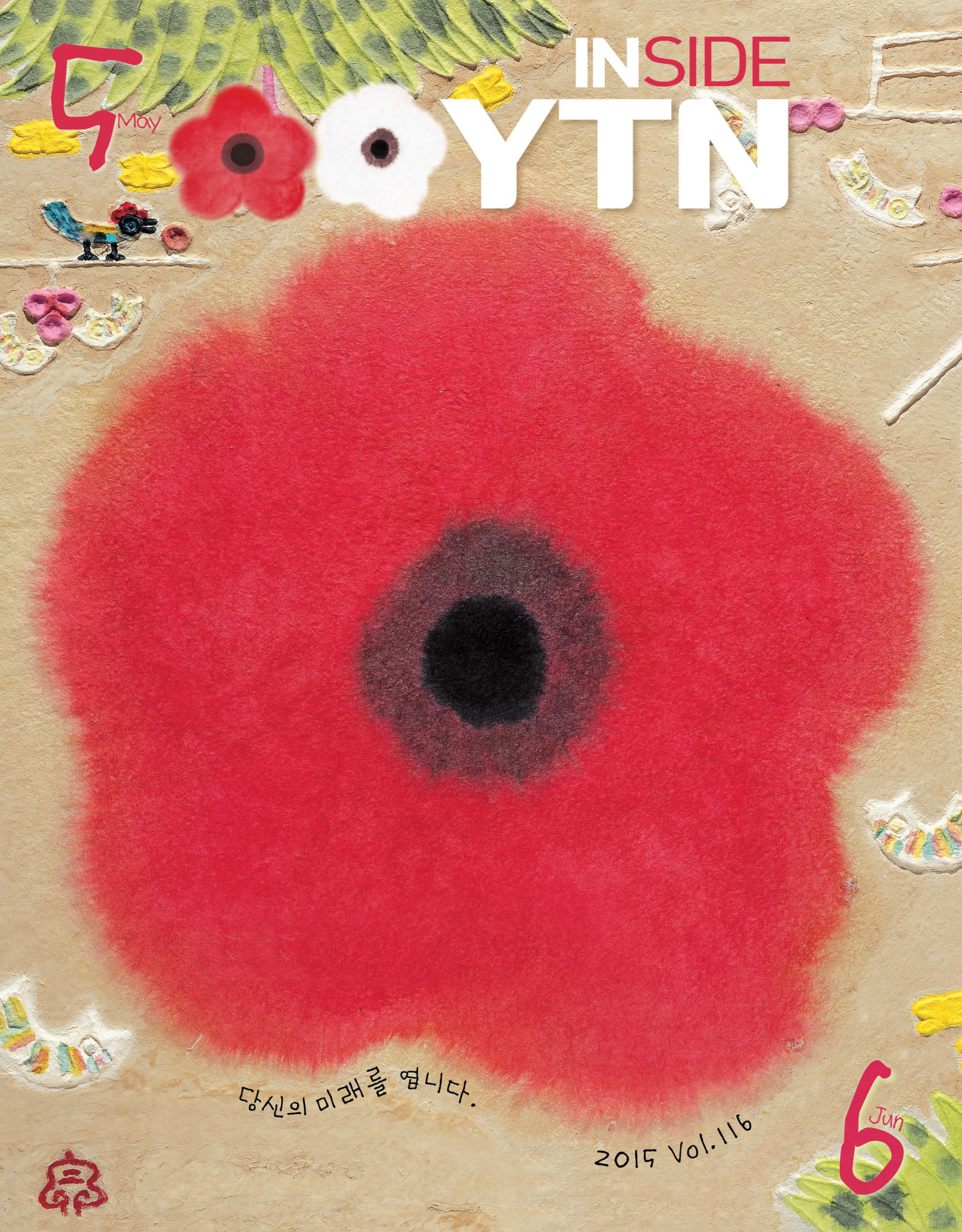
5 Ma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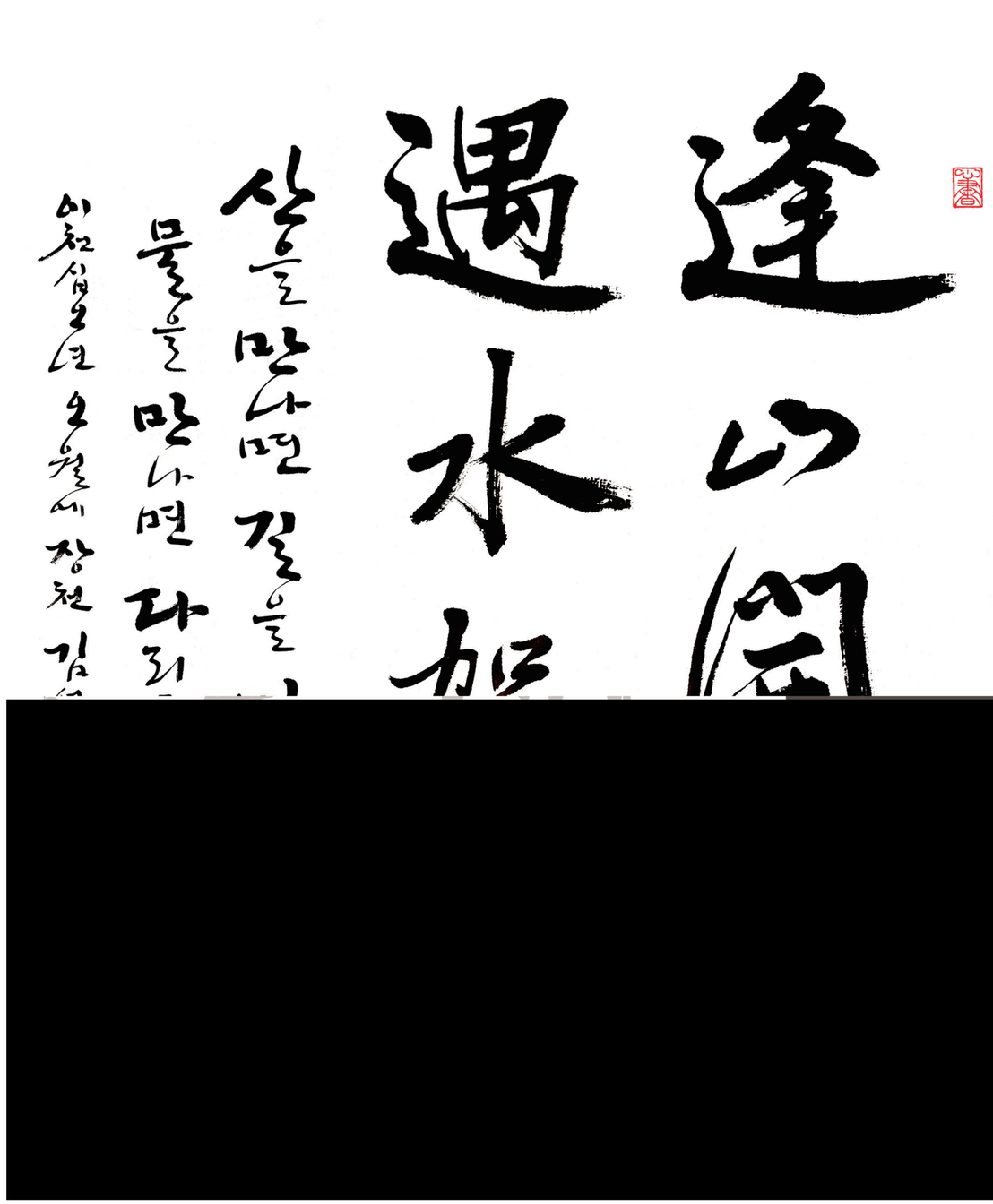
INSIDE YT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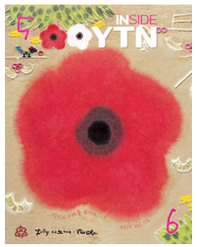


당신의 미래를 엽니다.

2015 Vol.116

6 Jun





표지

김병종 作

그의 그림에는 세계에 대한 근본 원리 및 삶의 본질을 '생명'으로 삼는 작가의 가치관이 배어 있으며 인간 삶의 아름다움을 지향하는 작가의 근본적 태도와 관점이 투사되어 있다. 사물과 풍경을 그렸든, 세계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 또는 예수를 그렸든, 그 무엇이든 그 화두의 근본은 '생명'이라는 것이다.
그의 그림에서 생명은 차별 없이 존재한다. 꽃과 새, 산과 나무, 강과 물고기 등 다양한 생명체들이 병립, 공생할 뿐 생명의 크고 작음, 경중과 고하는 들어있지 않다. 그야말로 생명이란 명사에 '사랑하다'와 '좋아하다'라는 뜻의 접두사 필로(Philo), 지혜라는 의미가 담긴 소피아(Sophia)의 세계(Philosophia)가 화폭 속에 더불어 있는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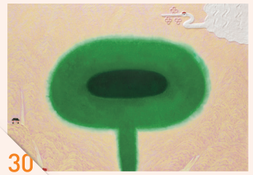
발행인 **조준희** | 편집 **홍보 · 시청자팀**
121-904 서울시 마포구 상암산로76 YTN 뉴스퀘어
TEL **02.398.8000** | 제보 **02.398.8585**
디자인 · 인쇄제작 | **아이아트플러스 02.2272.9807**

Contents May / Jun vol 116. 2015

IN

- In Newsquare
  - 04 신임 사장 취임사 | 변화와 혁신을 주도해 나갑시다
  - 08 추은호 | 죽은 공명이 산 유커를 부른다
  - 10 김선희 | 〈어벤져스2〉 속 YTN "시민들은 통행을 자제해 주십시오"
- Exclusive Now
  - 12 이성우 | 국토의 중심 청주입니다
  - 14 최원석 | "소금은 그대를 결코 자유롭게 하지 못하리라"
- 일구는 사람들 _ Make Your YTN
  - 16 김영목 | YTN의 신성장동력, 일자리 창출에서 찾다
  - 18 최재용 | 춤 추는 큰 물고기
- Made in YTN
  - 20 서정호 | 한 손으로 휙~휙~ 카드로 보는 뉴스
- 이 방송, 궁금하다 _ 만나고 싶은 사람
  - 22 지정윤 | 책보다 더한 감동, 사람을 읽다
- 미디어 클리닉
  - 24 박조원 | 최근의 미디어 흐름과 YTN
- YTN에 바란다
  - 26 이다 시게토시 | YTN의 빛나는 '20년' 역사
  - 28 이원경 | YTN을 통해 세상과 소통한다
- 이달의 자랑스러운 YTN인 상
  - 29 4월의 자랑스러운 YTN인 상 수상 소감

SIDE



- 홍경한의 아트스퀘어 _ 김병종 작가
  - 30 홍경한 | 김병종, 자연과 생명의 아름다운 결을 담다
- 앵커의 변신! _ 최영주 앵커
  - 32 김시호 |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열정 앵커 최영주
- YTN 달인들 _ 김신영 팀장
  - 34 김시호 | 마음을 전하는 손글씨, 캘리그래피
- 낭만人 탐구 _ 이현섭
  - 36 이현섭 | 영화를 통해 마음을 나눕니다. 마음으로 읽는 영화음악
- 컬처 스케치 _ 2015 자라섬 불꽃축제
  - 38 변재철 | 2015 자라섬 불꽃축제
- YTN 이모저모
  - 39 협약식, MOU 등 / 인사게시판

신임 사장 취임사

변화와 혁신을 주도해 나갑시다

조준희 사장

존경하는 YTN 임직원 여러분!

저는 오늘 대한민국 최고의 뉴스전문채널인 YTN의 가족이 되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껏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에 설렘과 기대, 두려움이 함께하는 겸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고, 방송의 패러다임이 빠르게 전환하는 시대이기에 이 순간, 더욱 막중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느낍니다.

오늘날의 방송환경은 1995년 YTN개국 때와 비교하면 상전벽해(桑田碧海)라 할 수 있습니다. 지하철에서 해외 뉴스를 실시간으로 보고, 국내 드라마를 중동의 사막에서 핸드폰으로 시청하는 시대입니다. 그야말로 전혀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 소용돌이 속에서 YTN이 처한 현실은 녹록치 않습니다. 종편과 보도전문채널이 생겨나면서 YTN 시청률은 정체되어 있고 매출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YTN 매출의 60%이상을 차지하는 광고 매출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이어진 노사분규로 인한 후유증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들은 YTN이 없다고 하더라도 조금도 불편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방송, 마케팅, 경비집행, 사업구조 등 YTN의 모든 부분을 냉정하게 들여다 보아야 합니다. 가까운 곳부터 작은 것부터 꼼꼼히 살펴보고, 약한 것은 보완하고 강한 것은 더욱 강하게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먼저, 우리는 내부의 힘부터 하나로 모아야 합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고 했습니다. 모두가 똘똘 뭉쳐 초심으로 돌아가 각자에게 숨겨진 역량을 150% 발휘하면 우리가 이루지 못할 일은 없습니다. 저는 방송과 언론에 문외한(門外漢)이기에 어떤 치우침과 편견이 없습니다. 저의 사무실과 마음의 문을 언제든지 활짝 열어두고, 여러분의 작은 의견, 조그만 소리도 모두 귀담아 들을 것입니다. 그래서 YTN 속에서 닫혔던 문을 열고 막혔던 벽을 허물어 각자의 생각과 아이디어가 샘물처럼 솟아나고 강물처럼 흐르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정적으로 탄탄한 YTN을 만들어야겠습니다. 재정에서 실패한 방송이 사회의 어두운 부분을 밝히고, 시민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며 국민의 알권리를 보호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YTN의 상황이 무척 어렵습니다. 그러나, 같은 바람이 불어도 어떤 배는 동쪽으로 가고 어떤 배는 서쪽으로 갑니다. 그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순전히 여러분 개개인의 생각과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겐 산을 만나면 길을 만들어 나아가고 물을 만나면 다리를 놓아 건너가는 『봉산개도 우수가교(逢山開道 遇水架橋)』의 정신이 필요합니다. 제가 먼저 발로 뛰겠습니다. 난관이 희망이 되고 역경이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제가 더 많이 더 멀리 뛰겠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마음 놓고 당당하게 취재하고 떳떳하게 방송할 수 있는, 새로운 도약을 위한 탄탄한 토대를 놓겠습니다. 또한 인사는 그 자리에 가장 적합한 사람을 찾아 배치하는 적소적재의 인사, 꿈과 희망을 주는 인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껏 학벌을 따지고, 출신을 따지고 지역을 따지는 인사를 한 적이 없습니다. 묵묵히 성실하게 열정적으로 노력하는 사람이 인정받고, 성과를 내는 사람에게 보상이 주어지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풍토를 반드시 지켜나가겠습니다. 그리하여 말이 앞서는 사람보다는 발로 뛰는 사람이 조직의 리더로 성장하는 YTN을 만들겠습니다.

YTN 임직원 여러분! 저는 방송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좋은 방송 없이 좋은 경영 없고, 좋은 경영 없이 좋은 방송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방송과 경영의 융합을 통해 서로에게 도움과 보탬이 되는 관계, 서로 간에 존경과 신뢰가 충만한 상생의 길을 열어 나가겠습니다. 지난 몇 년간 YTN은 극심한 노사분규를 겪었고, 안타깝게도 노사 간, 선후배 간, 동료 간 갈등의 골도 상당히 깊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노(勞)와 사(使)가 조직발전, 고용안정, 복리후생 등 추구하는 목표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더 많이 듣고 세심하게 마음을 기울여 그 상처가 하루빨리 아물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젠 진정으로 변화와 혁신이 필요한 때입니다. 『나무는 꽃을 버려야 열매를 맺고 강물은 강을 떠나야 바다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우리 YTN도 버릴 것은 과감히 버리고, 고칠 것은 한발 앞서 고치는 변화와 혁신을 추진해야 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선배의 피와 땀, 눈물과 아픔이 배어있는 YTN을 반드시 『최고의 방송사, 모두가 부러워하는 방송사』로 만들어야겠다는 책임감과 사명감이 더 커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과 여러분의 선배가 개척해온 시련 극복과 도전의 찬란한 YTN 역사가 안팎으로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방송환경이 치열해지고 경제상황이 어려워진데도 이유가 있지만, 서로 단합하고 화합하지 못한 YTN 내부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YTN은 또다시 역경을 극복하고 난관과 장애를 뛰어넘어, 더 큰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전 직원이 눈 뜨면 출근하고 싶고 월요일이 기다려지는 행복한 YTN을 만들고 싶습니다. 경영 부진, 시청률 하락을 남의 탓이나 환경 탓으로 돌리지 않고, 가슴에 손을 얹고 겸허히 자신을 돌아보며, 서로의 어깨를 두드려 주는 정감이 넘치는 YTN을 만들고 싶습니다. 뉴스전문채널 고유의 가치를 지키고 그 어떤 매체보다 사회적 사명을 다하여, YTN을 보면 세상이 열리고 미래가 보이는 공정하고 품격 있는 YTN을 만들고 싶습니다. 온 국민이 YTN으로 하루를 시작하여 YTN을 보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신뢰받고 사랑받는 국민의 방송 YTN을 만들고 싶습니다.

위기가 곧 기회입니다. 우리 모두 젖 먹던 힘까지 발휘하여 탄탄한 경영기반을 다지고 윤택한 회사를 만들어 우리 YTN 사전에 해고, 구조조정, 명퇴 등의 단어는 지워버립시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간절히 바라면 우리는 반드시 이루어 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뉴스채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세계적인 YTN』 국민들로부터 진정어린 신뢰와 존경을 받는 『위대한 YTN』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오직 시청자만 보고, 오직 국민만을 보면서, 두 손을 마주 잡고 힘차게 나아갑시다. 저는 오직 여러분만을 믿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3월 23일

사장 조 준 희

죽은 공명이 산 유커를 부른다

死 生

추은호 해설위원실장 | 해설위원실

'사공명능 주생중달(死孔明能 走生仲達)',
'죽은 공명이 산 중달을 도망치게 했다'
삼국지에 나오는 유명한 에피소드다.

삼국지의 위인 중 가장 사랑받는 인물이라면 단연 관우와 제갈공명을 꼽을 수 있겠다. 이들에 대한 사랑은 신앙의 대상으로 발전해 민간신앙에 뿌리내렸다. 무신으로 추앙받는 관우 신앙의 역사적 흔적은 보물 142호인 동묘(東廟)에서, 제갈공명 신앙은 남산 자락에 있는 와룡묘(臥龍廟)에서 찾을 수 있다. 제갈공명의 호인 와룡을 딴 와룡묘는 남산 순환도로를 걷다 보면 만날 수 있다. 와룡묘가 언제 세워졌는지 확실하지 않지만 이들의 신앙은 임진왜란 이후 명나라의 영향으로 이 땅에 자리 잡은 것으로 추정된다.

원래 남산은 조선 시대에는 제대로 대접받던 산이었다. 태조 이성계가 한양에 도읍을 정한 이후 남산은 북악산, 인왕산, 낙산과 함께 한양 도읍을 감싸는 어머니의 품과 같은 곳이었다. 산 정상에는(지금 팔각정이 있는 곳) 도성의 수호신사인 국사당을 세워 나라의 안녕을 기원하는 제사를 지냈다. 남산 능선을 따라 세워진 서울성곽과 남산 봉수대는 도성 방어와 군사통신의 핵심요소였다.

이처럼 남산이 조선의 개국성지와도 같은 대우를 받다 보니 이곳에는 일체의 사찰과 묘가 들어설 수 없었다. 남산이 훼손되는 것을 조정 차원에서 엄격하게 막은 것이었다. 이 때문인지 남산에는 오늘날에도 그 흔한 산사나 암자, 종교시설을 한 곳도 찾아볼 수 없다. 유일한 예외가 있다면 제갈공명을 모신 와룡묘라고나 할까? 모화사상과 무속신앙이 결합한 형태인 와룡묘만이 엄격한 통제 속에서도 살아남은 것이다.

그러나 남산은 일제에 의해 훼손되는 아픔을 겪는다. 일제는 우리의 민족 정신을 오염시키고 황국신민화를 강요할 목적으로 남산 중턱에 그들의 개국신인 아마데라스 오미가미를 제신으로 삼은 조선신궁을 건립했다. 국사당은 조선신궁보다 높은 곳에 위치했다는 이유로 인왕산으로 강제로 옮겨버린다. 일제의 패망과 더불어 남산을 흉물스럽게 오염시켰던 조선신궁은 폐쇄되고 지금은 그 자리를 안중근 의사 기념관과 백범광장이 들어서 민족혼과 남산의 정기를 되살리고 있다.

애국가의 구절처럼 '바람, 서리 불변'하며 영광과 아픔을 온 몸으로 겪어온 남산의 중심에는 근대의 위대한 건축물 유산이자 우리의 자랑인 YTN서울타워가 우뚝 세워져 있다. 서울을 지키는 수호신으로, 서울의 밤을 비추는 등대로, 서울의 최고 관광명소로 굳건히 자리하고 있다.

남산이 갖는 매력 때문에 남산과 YTN서울타워에는 외국인 관광객들로 넘쳐난다. 특히 유커(중국인 관광객)는 남산의 단골손님이다. 이들에게 남산과 YTN서울타워는 서울 관광의 Must-Visit이다. 서울을 한 눈에 볼 수 있다는 시원함 때문에, 한류 드라마의 단골 촬영지를 보겠다는 이유 때문에, 남산을 오르는 유커의 행렬은 좀처럼 끊이지 않는다. 이곳에서 웨딩 촬영을 하는 중국인 신랑 신부의 모습을 보는 것도 낯선 일이 아니다.

유커가 남산을 이처럼 많이 찾는 이유가 뭘까? 혹 남산 기슭을 지키고 있는 와룡묘의 제갈공명이 자신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는 우리에게 보은을 하는 것은 아닐까? 죽은 공명이 살아있는 후손인 유커를 불러들이는 것은 아닐까?

'사공명능 초생유객(死孔明能 招生游客)?',
이런 생각을 해본다.

어벤져스 속 YTN

"시민들은 통행을 자제해 주십시오!!"

김선희 부장 | 보도국 문화사회정책부

"앗, YTN 나왔다!" 〈어벤져스 2〉 기자 시사회 날, 부푼 기대를 갖고 보기 시작했지만 대한민국 이곳저곳이 마치 70년대를 연상하게 만드는 낙후된 모습으로 나오면서 속이 부글부글하던 터였다. 하지만 오동건 앵커와 YTN 로고를 보는 순간 뭔가 한 번에 보상받는 느낌이었다.

사실 지난해 한국 촬영 당시부터 제작사인 마블스튜디오가 한국을 어떻게 그릴 것인지 의구심이 들었다. 말로는 첨단 IT 강국의 이미지를 살리겠다고 했지만 쉽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 결과는 대실망. 물론 보는 사람마다 견해차는 있겠지만 영화담당기자로서 우리나라가 마블스튜디오에 해준 전폭적인 지원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어쨌든 한국의 뉴스채널 YTN이 전 세계 80개 나라에서 개봉하는 초대형 할리우드 블록버스터에 나왔다는 것은 명백히 호재다.

자, 그럼 지금부터 YTN이 어떻게 〈어벤져스 2〉 화면을 장식하게 됐는지 이야기해 볼까? 배급사인 월트디즈니에 따르면 마블스튜디오는 뒤늦게 뉴스 장면이 있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한다. 월트디즈니가 적당한 매체 물색에 나서고 배석규 전 사장이 힘을 보태면서 성사됐다. 물론 YTN이 뉴스 전문매체로서 대내외적인 인지도와 명성을 쌓은 것도 큰 몫을 했다. YTN은 세계 180개국에 뉴스를 실시간 전하는 유일한 뉴스 전문 매체가 아니던가. 그런 차별화된 경쟁력도 많이 작용했다는 것이 월트디즈니의 전언이다. 촬영이 확정되면서 어떤 앵커가 출연할지도 관건이었다. 마블 측에서는 처음 남자 앵커 한 명, 여자 앵커 한 명을 원했고 당시 송경철 앵커팀장은 오동건 앵커와 김선영 앵커를 추천했다. 동서양을 아우르는 마스크와 매끄러운 진행, 유창한 영어회화 실력을 고려해 두 사람이 선정됐다. 최종 선택은 오동건 앵커! 마블 측이 한국 여자배우로 수현이 낙점됐으니 앵커는 남자가 좋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한다. 촬영은 후반 작업 때인 1월 경 이루어졌다. 〈어벤져스 2〉 개봉이 4월 23일이었으니 불과 석 달 전에 촬영한 것이다. 그러다보니 해외 촬영 스텝 없이 우리 스튜디오에서 PD와 앵커, 홍보팀이 모여 단출히 진행됐다. 앵커멘트는 "서울에 비행 물체가 날고 있으니 시민들은 대피하라" 는 것이었다. 마블 측이 내용을 보내왔고 국제부 안소영 기자가 구어체로 멋지게 번역해 완성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출연료를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또 촬영 전에 월트디즈니의 변호사가 배석한 가운데 초상권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사인을 하고 촬영에 들어갔다.

현재 메이저급 한국 영화에 나오는 뉴스 장면의 90%는 YTN 로고가 나오고 있다. 그리고 앵커가 출연하면 30만 원 정도 받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마블 측은 우리 스튜디오와 스텝, 앵커까지 활용하고 공짜로 화면을 받아간 것이다. 조금 괘씸하긴 하지만 우리도 실익을 챙긴 것이 적지 않다. YTN 로고를 노출할 때 반드시 고유의 글자체를 보여주고 우리 속보 뉴스와 똑같은 포맷으로 나가야 한다는 조건을 내세운 것이다. 그래서 녹화를 완성할 때 홍보팀에서 직접 로고를 심어서 파일로 전송했다. 할리우드 영화사의 갑질 속에서도 우리의 주장을 관철하고 영화 속에서 YTN을 온전히 살린 것이다.

연일 새로운 흥행기록을 쓰고 있는 〈어벤져스 2〉는 멀지 않아 최단 기간 천만 관객을 돌파한 할리우드 영화가 될 것 같다. 상대적으로 한국 영화가 위축되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도 있지만 이번만큼은 더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이 없지 않다. 다매체 다채널 시대에 돈 안 들이는 엄청난 홍보를 하고 있다는 기분 때문일까. YTN 가족이라면 모두 공감할 것이다.

어벤져스 군단이 전 세계 도시를 점령한 것처럼 YTN이 한국을 넘어 세계 속의 뉴스 전문채널로 거듭날 때까지 우리 모두 파이팅!

국토의 중심
청주淸州입니다

이성우 기자 | 보도국 청주지국

회사 사보에 청주지국을 소개하는 원고를 기고한 지 만 5년 하고도 두 달이 지났습니다. 5년 동안 청주지국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다른 지국처럼 사무실을 이전하거나 사람이 바뀌거나 그랬으면 좋겠는데 다행인지 아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네요.

5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달라진 게 없는 사무실과 함께 나이와 세월을 먹어버린(?) 선배들. 청주지국은 변하지 않는 가운데 연륜만 점점 쌓여가고 있습니다.
아 참~ 일을 도와주는 운전담당과 오디오 맨은 바뀌었네요.

청주지국은 다들 아시다시피 국토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바다가 없는 지역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 각 지역에 큰 사고가 있으면 출장도 제일 많이 가는 지국 가운데 하나입니다. 청주지국에서 근무하면서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 다 출장을 가봤습니다. 심지어 갈 거라고 생각지도 않았던 제주도에도 태풍 취재하러 출장을 가기도 했고요. 아마 공항이 있다는 이유로 갔던 것 같은데 당시에는 청주지국이 다른 곳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지국 같다는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지국 선후배들을 만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생각해 보니 천안함 사건을 비롯해 세월호, 장성 요양병원 화재, 고성 총기 난사 등 셀 수 없을 정도로 전국 이곳저곳으로 출장을 갔네요. 아무튼 TVU가 생긴 이후로 출장이 많아진 것 같은데 나날이 기술이 발전하니 앞으로도 이만저만 걱정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일을 하기가 싫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하^^;

다른 지국도 마찬가지겠지만, 청주지국도 모든 직원을 합해봐야 6명밖에 안 되는 단출한 조직입니다. 그렇다 보니 매일 얼굴 보고 이야기 나누고 취재와 촬영도 함께 하고 가족보다도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요. 항상 관계가 좋을 수만은 없지만 그래도 서로 한 발씩 양보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듣다 보니 큰 사건 · 사고 없이 무탈하게 조직이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 가뭄이 한창 심한 시기에 가뭄 취재를 위해 충주호에 갔습니다. 가뭄으로 수위는 낮아졌지만, 충주호 주변 풍경은 여전히 멋스럽더군요. 혹시 충북에 놀러 오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충주호 유람선을 꼭 한 번 타 보세요. 유람선에서 보는 골짜기와 산등성이가 청주지국 사람들처럼 아주 멋지답니다.

유람선만 타실 것이 아니라 청주에도 오셔서 주말이 되면 TVU를 타러 저희가 자주 가는 옛 대통령 별장 '청남대'도 구경하시고, 청주의 자랑거리인 직지박물관도 구경하세요.
참고로 청주는 삼겹살 요리가 좀 많답니다. 삼겹살이 제일 먼저 시작됐다고 하는데 그건 믿기 나름이겠지요.

이렇게 풍경 좋고 사람 좋은 곳에 자리 잡은 이곳,
바로 청주지국입니다.

“소금은 그대를 결코 자유롭게 하지 못하리라”

최원석 기자 | 보도국 편집4부

“진짜 나쁜 놈들이야.” 형사들이 드물게 이런 표현을 쓸 때가 있습니다. 절도범이나 살인범을 두고 ‘가정환경이 좀 딱하다’거나 ‘직업이 도둑질’이라며 안쓰러운 반응을 보일 때와는 다른 감정이 섞여 있습니다. 오만가지 사건을 다 다뤄본 형사들이지만, ‘상습 사기꾼’을 붙잡아 수사할 때는 특히 신경이 곤두선다는 말을 합니다.

“진짜 나쁜 사람들입니다.” 제보자도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속은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목사 부부의 ‘자연치유 캠프’에 갔다가 겨우 빠져 나온 일을 말할 때 유난히 목에 핏대를 세웠습니다. 남편은 강동구에서 교회를 운영하고, 아내는 수도권에서 꽤 알려져 있는 이른바 ‘자연식 밥상’ 전문 식당 주인이라고 했습니다.

교회 신도들을 상담하는 척 하면서 아픈 데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리곤 좋은 곳을 안다고, 의지만 있으면 어떤 병이든 나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와보라고 슬쩍 떠봤습니다. 9박 10일에 120만 원을 현금으로 내야한다는 조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캠프에 모인 사람들에게 목사 부부는 소금을 내밀었습니다. 입으로 먹고, 밑으로는 넣으라고 했습니다. 천연 미네랄이 듬뿍 담긴 천일염을 몸에 채우면 병균과 바이러스가 빠져나간다고 설교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척 무허가 시술의 효능을 세뇌하고, 아파서 못 참겠다던 사람들에겐 의지박약이라며 다그쳤습니다. 몇 년 동안 수백, 수천 명이 속았습니다.

목사 부부 일당은 이런 ‘건강’ 상품에 ‘신앙’을 결합해 말 그대로 ‘창의적 사기’를 만들어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인 특유의 맹목성만 끄집어낼 수 있다면 돈 일이 백만 원쯤은 손쉽게 가로챌 수 있다는 계산이 처음부터 깔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계산으로 대장암 투병에 지쳐 있던 ‘무쇠팔’ 최동원을 끌어들여 함께 사업을 같이 하자는 제안까지 했습니다. 목사 부부의 사기는 아프고 절박한 사람들만을 교묘하게 노린 ‘진짜 질 나쁜’ 수법이었습니다.

이대건 캡의 지휘로 사회부 사건팀은 ‘소금물 관장’ 후속보도를 며칠 동안 이어갔습니다. 목사 부부의 체포와 최동원 선수 피해 사실을 시작으로 유사 범죄들에 대한 경고성 보도도 이어갔습니다. 다른 언론사 뿐 아니라 의사협회와 종교단체에서도 성명을 발표해 위험성을 알렸습니다. 강동경찰서 지능팀 형사들에게 체포된 목사 부부는 동부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사기꾼들은 또 새로운 수법으로 사람들을 속일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저도 결심을 하나 해봅니다. 적어도 YTN 시청자는 ‘진짜 나쁜 놈들’의 악랄한 속셈을 미리 알고, 용기내어 제보할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어진 제보들이 모여 또 다른 ‘소금물 관장’ 사기를 미리 막을 수 있도록 늘 감시하겠습니다.

YTN의 신성장동력, 일자리 창출에서 찾다

김영목 과장 | 웨더본부 인재개발TF팀

01 '취업 아카데미'라는 새로운 시도

"YTN에서 관심 있다니 의외네요. 그런데 유사 실적이 없어서 선정될지는 모르겠어요."

2012년 '청년 취업 아카데미' 운영기관에 지원하기 위해 문의한 질문에 고용노동부 담당공무원의 반응은 차가웠다. 선정 가능성에 대해 미리 의문을 표하며 관련 업력도 없는 언론사가 운영기관으로 진입하는 것에 대해 경계하는 모습도 보였다. 선정 가능성이 낮으니 서류 준비에 고생만 할 것이란 반응이 대부분이었다.

사내 유관부서를 샅샅이 뒤지며 유사 사례를 찾았지만 실적이라고 삼을만한 전례가 없었기에 탈락해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선정 가능성이 낮고 처음 시도되는 프로젝트여서 괜한 짓 하는 건 아닌가라는 회의감이 들 때도 많았지만, 급변하는 방송 환경에서 새로운 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7개월간의 준비 끝에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운영기관으로 선정됐지만, 신규 사업을 운영하기엔 장애물이 많았다. 회사 예산이 아닌 정부지원금으로 시작했기에 반복되는 운영보고서 작성과 회계감사도 버거웠지만, 사내에서 부서별로 업무 권한을 조정하는 일도 쉽지만은 않았다. 우여곡절을 견디며 취업 아카데미를 끌고 나간 건 현재의 YTN에 새로운 성장 동력이 꼭 필요하다는 나름의 신념 때문이었다.

02 신성장동력 발굴의 필요성

장기 불황과 방송 매체의 다양화, 방송 시청자의 감소 등으로 방송계의 전반적인 불황이 가시화된 상황에서 신성장동력이 필요했다. 과거 방송 채널이 3~4개에 불과해 방송사를 소유했다는 것만으로 안정적 경영이 가능했던 시절과 달리 현재와 같은 다매체 환경에서의 방송경영은 달라야 한다는 확신이 있었다. 기업이 하나의 아이템만으로 영속될 수 있다면 2015년 삼성그룹의 주력상품은 '갤럭시'가 아니라 1930년대처럼 '청과/건어물'이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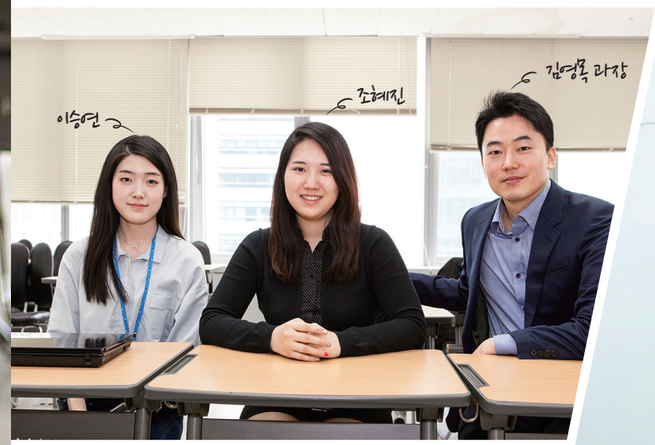
언론의 공익성과 기업의 수익성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YTN의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기획안을 고민했다. 공익성과 수익성의 교집합 내에 있던 몇몇 아이디어들 중 취업교육을 선택한 건 정부 정책에도 부합했기 때문이다. 정부지원이 가능한 아이템으로 투자비용을 없애고 실패 위험성을 낮춰 '공익성+ 수익성+무비용+저위험'을 모두 충족하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겠다는 목표로 '취업 아카데미'를 시작했다. '취업 아카데미'로 시작하면 취업, 창업, 창직, 교육, 직업교육, 직무교육, 해외취업/창업 등 다양한 관련 분야로 가지를 뻗어갈 수 있다. 당장의 수익은 다소 적더라도 시대적 흐름에 맞는 신사업을 기획해 육성하면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고 새로운 뿌리가 되어 YTN은 더 크고 더 풍성한 나무가 될 수 있다.

03 인재개발TF팀 출범으로 다시 꾸는 백년의 꿈

취업 아카데미의 회계 감사가 끝나가던 2014년 말에 웨더본부의 기상아카데미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됐고, 6개월간의 준비 끝에 '인재개발TF팀'으로 전담 조직이 발족됐다.

대학생 대상 취업교육을 시행한 청년 취업 아카데미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올해는 장년층 재취업을 지원하는 정부사업의 운영기관으로 지원해 선정됐다. 부서가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인원이 없어 금년 내 정부 사업은 불가능했지만 취업 포털 업체를 설득해 컨소시엄을 구성한 끝에 선정될 수 있었다. 인재개발팀의 첫 번째 프로젝트가 취업 지원 사업을 재개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직장에 재직 중일 때 퇴직 이후의 일자리를 준비해 공백 기간 없이 재취업함으로써 직장인의 경제활동 수명을 늘리고, 퇴직 후 실업자가 양산되는 사회 문제를 해소하고, 그 과정에서 YTN의 공익성을 높이고 신규 수익도 발생시키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다. 재작년처럼 전례가 없어 운영상의 어려움이 많겠지만, 이런 새로운 시도가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고 다수의 신성장동력이 갖춰질 때 100년 기업 YTN의 꿈이 현실화되리라 믿는다.



춤추는 큰 물고기

최재용 차장 | 홍보·시청자팀

미디어 전략실의 이헌섭 씨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축하합니다. 〈매체 경쟁력 강화와 경영 개선 아이디어 공모〉에서 선배가 우수상으로 뽑혔네요. 아쉽게도 최우수상 수상자는 없어요."
내가 농을 쳤다. "이왕에 주는 거 최우수상으로 주면 안될까?" '사보 리뉴얼과 비용 절감'을 이유로 연말 공로상을 받은 게 겨우 석 달 전 일인데, 아이디어 공모 수상자 명단의 첫 줄에 또 이름을 올리다니 도대체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거지? 그저 부서 한 번 옮겼을 뿐인데… 18년 만에.

홍보 투어 코스 관리, 사진 촬영, 이런저런 포스터와 디자인을 제작하는 일에서부터 영화나 드라마 촬영의 협조 요청을 처리하는 업무까지, 홍보·시청자팀에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은 흘러넘친다. 그 중에서도 두 달에 한 번씩 제작되는 사보의 경우 큰 제작비가 들어가는 만큼 '읽고 싶은 사보, 보고 싶은 사보'로 만들기 위해 특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사내외의 독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특별 메뉴를 개발하고, 사진들과 디자인을 버무려 맛깔스럽게 조리하는 게 나의 역할이라면, 전 홍보팀장 박철원 선배는 내가 넣는 재료의 양과 불의 세기를 적절히 조절해 주는 엄한 시어머니와도 같은 역할을 해주었다. 덕분에 지금은 "우리 아이가… 아니 우리 사보가 달라졌어요."라는 말을 여기저기서 듣고 있다. 간혹 "우리 최재용이 그렇게 달라졌다면서요?"라는 말도 함께;;

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홍보팀의 역할은 이것들이 전부는 아니다. 날씨가 풀리면서 DMC 주변으로 국내외의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오고 있고, 특히 YTN으로도 견학을 오는 단체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주변의 방송국들에 비해 방문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만한 뉴스퀘어만의 볼거리가 상대적으로 조금 부족한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된다. 이번에 나에게 우수상을 안겨 준 몇 가지 제안들, 이를테면 명품 언론을 추구하는 YTN의 철학과 비전을 공유할 수 있는 명품 자동차 회사와 광고 협찬을 맺고, 로비에 자동차와 작가들의 작품을 함께 전시하는 '갤러리 24', 비어있는 임대 층에서의 '아트페어 또는 보도사진전' 등의 방안이 그 아쉬움을 해소하기 위한 고민의 과정 속에서 나온 것들이다. 그 밖에도 엘리베이터 내의 사용하지 않는 버튼 '18층'을 '24층'으로 바꾸고, 누를 때마다 "환영합니다. 여기는 24시간 뉴스채널 YTN입니다"라는 멘트가 흘러나오게 한다던가, 먼 곳에서도 YTN 뉴스가 24시간 생방송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볼 수 있도록 'ON AIR 24'라는 대형 글씨가 뚫린 시트지로 유리창을 가리고 일몰 후 형광등을 켠다면 홍보효과 만점일 텐데, 그리고 뉴스퀘어와 YTN 서울타워를 연계한 일일투어코스를 개발하고, 주차장에 방치된 옛 중계차를 살짝 개조해 커플이나 가족들을 태우고 남산 순환도로를 돌며 경치를 감상하는 유료 상품을 만들면 홍보와 수익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을텐데… 라는 상상도 해본다. 물론 이런 아이디어를 실행하는데 까지는 많은 난관이 따르겠지만 권위적이고 딱딱한 언론사의 이미지를 예술과 문화로 맛사지(?) 하자는 의미로 내 나름대로 정한 홍보 슬로건은 '뉴스는 무겁게~ 뉴스퀘어는 가볍게~' 정도가 되겠다.

"가끔은 생각지도 못한 누군가가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일을 한다." 천재 수학자 앨런 튜링을 소재로 한 영화 〈이미테이션 게임〉에 나오는 말이다. 불과 일 년여 전까지만 하더라도 '생각지도 못한 누군가'에 불과했던 내가, 지금은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일들'을 벌이고 있다. 덕분에 잠을 못 이루고 있기는 하지만.

"모든 사람은 천재다. 하지만 물고기를 나무타기 실력으로 평가한다면, 물고기는 평생 자신이 형편없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갈 것이다."라는 말로 뒤늦게나마 내가 나무타기를 하던 물고기(?)였다는 것을 깨닫게 해 준 건 아인슈타인이다. 어쨌거나 제 물에서 마음껏 헤엄칠 수 있도록 나를 '과감하게' 보내 준 회사 측과 '통 크게' 받아 준 홍보·시청자팀 식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나는 지금 춤추는 큰 물고기. 고래다.

한 손으로 휙~휙~ 카드로 보는 뉴스

서정호 팀장 | YTN PLUS 모바일프로젝트팀

동기가 아팠다. 병문안을 갔다. 몸은 좀 어떤지, 이런저런 근황을 주고받았다.
그러자 그가 대뜸, "갤럭시폰의 경쟁자가 뭔지 알아?" 하고 물었다.
나는 "글쎄, 아이폰이 아닐까?" 하고 대답했다. 동기는 내 말에 "보통은 그렇게들 대답하지만, 아니야.
갤럭시폰의 경쟁자는 커피야, 커피. 왜냐고? 사람들이 커피를 마시는 시간까지도 빼앗아오고 싶은 거거든" 하고 핀잔주듯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뉴스의 경쟁자도 비슷한 논리야. 우리의 경쟁자는 결국 SNS와 게임, 그리고 웹툰 인거지" 하고 말을 이었다.

모바일 시장에서의 싸움은 시간을 빼앗는 싸움이다. 시간을 가운데 두고, 뺏고 빼앗기는 경쟁을 벌이는 시장인 것이다. 사람들이 소비하고 있는 시간 가운데 일부를 빼앗아오지 못하면, 반대로 빼앗은 시간을 지키지 못하면, 이 시장에서의 상점은 업종을 바꿔야하거나 간판을 내려야만 한다. 소외만큼 무서운 것이 없다. 모바일 시장에서의 외면은, 그야말로 사형선고와 다름없기 때문이다.

모바일 뉴스분야에서 혁신적인 콘텐츠 관리시스템(CMS)으로 유명한 미국의 〈복스〉는, 2014년 4월, '카드스택(Card Stack)'이라는 제목으로 새로운 형식의 뉴스를 선보이기 시작했다. 카드스택이란, 일종의 해설적 저널리즘(Explanatory Journalism)이다. 그것은 어떤 사안에 대하여 보다 흥미롭고 깊이 있게 파악해 볼 수 있도록 개발된 새로운 형식의 디지털 내러티브다. 카드스택은 지난해 8월, 국내 언론사 가운데 〈연합뉴스〉와 〈민중의 소리〉가 처음으로 도입하면서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뒤이어 〈SBS〉와 〈경향신문〉 등이 잇따라 서비스하면서 확산되기 시작했다.

카드스택 방식의 뉴스가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는 단순하다. 첫 번째, 모바일 사용자들은 글 보다 그림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모바일 사용자들은 긴 것 보다 짧은 것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세 번째, 모바일 사용자들은 엿보기나 놀이하기를 즐기기 때문이다. 이 같은 사용자들의 행태선호는 모바일 시장에서의 뉴스형식, 말하자면 포맷과 디자인(UI) 그리고 사용자경험(UX) 등을 추론할 수 있게 만드는 지표가 된다. 카드스택은 그와 같은 지표들로 검토된 형식 가운데 하나인 것이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이 있다. 카드스택이 국내에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했던 때, 〈네이버〉와 같은 국내 포털 사업자들은 카드스택 방식의 진일보한 뉴스형식을 도입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문가 의견이 다수였다. 하지만 그로부터 넉 달이 지난 지난해 말, 네이버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뒤엎고 카드스택 방식의 뉴스포맷을 전격적으로 도입해버렸다. 현재 네이버 모바일 판형에서 보고 있는 '한 손으로 휙~ 카드뉴스'는, 카드스택의 네이버 버전이라고 보면 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속도'다. 복스의 카드스택이 개발된 지 넉 달도 안 되어 국내 언론사가 도입했다는 점, 그로부터 또 다시 넉 달도 안 되어 국내 대형 포털이 서비스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해 본다면, 모바일 시장에서의 확산과 적용은 그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대략이나마 짐작해 볼 수 있다. 공룡의 움직임이 저 정도라면, 우리 회사의 '권장 시속' 역시 상대적으로 추론이 가능해 진다.

우리 회사는 지난해 10월 들어 카드스택 형식의 뉴스를 전격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했다. YTN '한컷 뉴스'가 바로 그것이다. 한컷 뉴스는 본사 그래픽팀의 비디오 파일 등을 재활용 하는 것으로 시작했다가 올해 들어 모바일 뉴스콘텐츠를 직접 발제·제작하는 방식으로 선회했다. 성과는 좋았다. 예를 들어 네이버 뉴스의 메인코너 쪽 노출 횟수를, PV 실적에 따른 우리 트래픽 성과로 고려해 본다면, 지난 3월 한 달 동안 네이버 뉴스 쪽 메인에 선정된 횟수는 총 15회에 이른다. 이들에 한 번 꼴로 네이버 뉴스 쪽 메인을 차지했다는 의미다. 또한 사용자 참여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댓글 수를 확인해 보면, 그 열기 역시 쉽게 짐작 가능하다. 예를 들어 지난 3월 2일에 제작했던 '전자칩 이식' 한컷 뉴스의 경우는 댓글 수가 무려 3천여 개 넘게 달렸고, 지난 3월 18일에 제작했던 '수입차 수리비'의 경우는 댓글 수가 2천여 개 가까이 달리는 등 사용자 참여도가 무척 높았다.

'한컷 뉴스'는 최근 뉴스편집부서의 '한컷 60초'라는 영상콘텐츠 문법으로 그 활용 범위가 다양해졌으며, '네이버 포스트'라는 신규 플랫폼에도 적용함으로써 트랜스 미디어 형태로 진화하기 시작했다. 그 가운데 네이버 포스트는 '스토리가 있는 뉴스'라는 타이틀로 운용되고 있는 이른바 '피키캐스트 형 움짤뉴스'인데, 우리 회사는 네이버도 놀랄 정도로 주목할 만한 완성도·실적을 이루어내고 있는 중이다. 이런 뛰어난 실적의 밑바탕에는 YTN PLUS 모바일 콘텐츠 크리에이터들의 노력이 숨어있다. 이들은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모바일 분야의 최신무기라고 지칭할 수 있는 자원들이다.

최초의 컴퓨터는 한동안 '계산기' 역할을 자처했다. 그리고 시대가 흘러 '미디어'로 진화를 하였다가, 이제는 명실공히 '라이프'가 되었다. 스마트폰을 단순히 모바일 '폰'으로만 규정하고 지나친다면, 모바일 '라이프' 시대에 뉴스의 설 자리는 보다 더 좁아지고 말 것이다.

"모바일 시대의 뉴스 경쟁자는 SNS와 게임 그리고 웹툰 등이다."
동기 고재형(제주지국 근무) 말이 맞다.

책보다 더한 감동, 사람을 읽다

만나고 싶은 사람

지정윤 PD | 사이언스TV본부 콘텐츠제작팀

누군가와의 만남,
그것도 처음 보는 사람과 만나는 일이라면?
우리는 우선, 예의를 갖추어 약속 시간과 장소를 생각하고
함께 밥을 먹을지, 차 한 잔만 그냥 나눌지 고민한다.
그리고 막상 만나게 되더라도 처음 만난 사람은 무슨 말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거기에 번거로움,
어색함은 당연히 옵션으로 따라 붙고 말이다.
하지만 이런 저런 고민은 잠시 접어두시길~
우리들의 만남 주선 전문 대행사(?)
〈만나고 싶은 사람〉과 함께 할 때에는 말이다.

매주 수요일 오전 9시, 우리가 만나고 싶어 했던 바로 그 사람이 아주 친절하게도(?) 우리의 안방으로 찾아온다.
연기자, 가수, 코미디언, 정치가, 사회 활동가 그리고 스포츠맨까지~
직업 불문! 나이 불문! 성별 불문! 그저 우리가 만나고 싶다는 그 이유 하나로 그분들과의 만남은 성사될 것이다. 그·러·나! 초대 손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은 30분 남짓, 한 사람을 제대로 알기에 턱 없이 짧은 시간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아쉬움은 두지 마시길, 초대 손님의 하루를 카메라로 24시간 밀착 초정밀 관찰하는 '일상 다반사'를 시작으로 삶의 맥을 짚어주는 핵심 요약본인 '인물 평전'은 제작진이 사전 취재, 기사 검색 등을 통해 초대 손님의 뒷(?)조사를 철저하게 하고, 그렇게 알아낸 이야깃거리들을 3개의 키워드로 뽑아낸다. 물론 이 3개의 키워드를 통해 초대 손님의 인생 전부를 안다고 얘기할 순 없어도 그가 지나온 삶의 길이 어떠했을지 짐작 정도는 할 수 있으리라.

아직은 여러 초대 손님을 모시지 못했지만 그래도 생각나는 내용은 첫 회에 출연했던 원로 코미디언 남보원 씨. 나이 칠십을 넘겨서도 '인생은 레디고'라며 스튜디오에서 구성지게 노래를 불러 주었고(자기 노래인데 N.G가 10번 이상 났다. 나이가 들어서인가?) 요리연구가 김하진 씨는 봄에 맞는 맛있는 봄채소 두루치기(레시피는 방송으로 확인하시라~)를 만들어 새로운 맛을 보여주기도 하였다(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역시 〈만나고 싶은 사람〉의 백미는'비·하·人드'!
초대 손님의 추억 속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을 인터뷰하고 물건(한비야 교수는 지도가 그려있는 샤워 캡을 가지고 나왔다) 이나 음식(탕수육, 비빔국수, 봄채소) 등을 직접 스튜디오로 가지고 나와 그것들의 추억 속 기억을 되짚어 내 아무도 몰랐던 숨은 이야기를 끌어내고자 야심차게 기획됐다. 이 코너는 실제로 녹화 중 스튜디오에 감동의 쓰나미를 몰고 오기도 했다. 평소 존경해 왔다는 김홍신 작가의 깜짝 인터뷰를 보고 천하의 터프가이로 알려진 의리남 배우 김보성 씨는 눈물을 훔쳐야만 했고, 남에게 밥만 열심히 퍼주었던 밥 퍼주는 시인 최일도 목사는 제작진이 건넨 따끈한 밥 한 그릇에 감동의 탄성을 내질렀다(그들의 눈물과 감동의 시간은 방송을 통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의 인생을 읽는 것이 책보다 더 큰 감동을 준다고 했다. 잘 모르는 사람과의 만남에 혹시라도 더럭 겁부터 났던 사람이라면 이제 망설이지 말고 열린 마음을 조금 준비하고 머릿속으로 살포시 만나고 싶은 그 사람을 살짝 떠올리기만 하면 된다.
신개념 감동 토크 프로그램 〈만나고 싶은 사람〉이 속 깊은 만남을 여러분들에게 주선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만나고 싶으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MC : 김동률(서강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윤서영(YTN 앵커)
연출 : 지정윤, 홍종현, 박민지
작가 : 금경숙
YTN사이언스 매주 금요일 9시(본방) 토요일 00시(재방) 일요일 18시(삼방)
YTN 매주 일요일 00시33분

최근의 미디어 흐름과 YTN

박조원 교수 | 한양대학교 언론정보학부

올해로 개국 20년을 맞은 YTN은 안팎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의 대표적인 방송뉴스채널로 확고하게 자리 잡았다. 하지만 최근 미디어 산업의 동향 YTN의 시련을 예고하고 있기도 하다. 이제 YTN은 지금까지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다. 이에 이 글에서는 최근 미디어 산업 동향의 특징을 살펴보고 YTN이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 간략히 논해보고자 한다.

최근 미디어 흐름의 특징은 경쟁(Competition), 합병(Consolidation), 관리(Control)의 '3C'로 요약될 수 있다. 방송 시장에만 국한하더라도 종합편성 채널의 등장으로 시청자들의 채널 선택권은 더 넓어졌으며 방송 외적으로는 비디오 게임, SNS, 웹툰 등의 다양한 매체들이 시청자들의 주목과 시간을 뺏기 위해 경쟁하고 있다. 반면 탈규제로 인한 인수합병으로 방송의 소유권은 점점 더 소수의 미디어 기업으로 집중되고 있다. 케이블텔레비전 PP(Program provider) CJ E&M은 오리온의 온미디어를 인수했으며,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IPTV 사업자인 SK브로드밴드는 케이블텔레비전 MSO(Multiple system operator)인 C&M을 인수하려 한다는 소문도 있다. SK브로드밴드가 C&M을 인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C&M이 인수합병(M&A) 시장에 매물로 나와 있는 것은 확실한 만큼 어느 기업에서 인수하더라도 C&M 인수의 향방은 유료방송 업계의 사업자 순위를 뒤바꿀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경쟁과 합병의 결과로 인해 방송 산업의 사업 관리는 더욱 강화되고 있다. 방송사들의 더욱 정교해지고 치열해진 프로그래밍 전략, 새로운 포맷의 개발, 비즈니스 모델의 개발 등은 사업 관리가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같은 치열한 경쟁 환경 속에서 YTN의 경쟁력은 결국 콘텐츠의 질이 좌우할 것이다. 관건은 혁신적인 콘텐츠를 만들어 내는 역량이다. 새로운 유형의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타사와의 차별화를 꾀해야 한다. 필자 개인적으로는 문화·예술 전문 보도 프로그램도 고려해봄 직할 것으로 보인다. 편성과 관련해서는 매 시간 반복되는 뉴스에 대한 재고도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보도전문 채널인 YTN의 특성 상 불가피하기는 하지만 지속적으로 시청자를 잡아두는데 어려움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징검다리식 뉴스 아이템 편성도 고려할만할 것이다. 이는 시청자들의 시청 흐름(Audience flow) 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YTN이 보유한 매체들 간의 콘텐츠 차별화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YTN DMB의 경우 YTN 콘텐츠의 단순한 재전송 수단에서 벗어나 DMB라는 새로운 매체의 특성을 살리는 실험적 콘텐츠의 개발과 편성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열린 조직 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시도가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YTN이 대한민국 방송 뉴스의 리더 역할을 계속해서 감당해주길 기대한다.

YTN의 빛나는 '20년' 역사

이다 시게토시 지국장 | TBS서울지국

「이것이 YTN이 걸어온 길입니다」. 친절하고 소탈한 국제부장이,
사내에 마련된 YTN 홍보 투어 코스를 안내해 주었습니다.
지난해 10월, 제가 TBS 서울지국장에 부임해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많은 뉴스의 현장을 취재했을 때 썼던 초기 ENG카메라나, 편집 방침, 그리고 YTN이 수상(受賞)했던 많은 상들. 「YTN의 빛나는 역사」가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의 첫 「24시간 뉴스 채널」이 방송 시작을 한 것이 1995년.
모두가 새로운 도전이었다고 생각했고, 이후 하나하나의 뉴스가 쌓이는 동안 YTN은 개국 2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정말로 축하드립니다.

개국 20주년! 동시에, 우리 TBS(도쿄방송)와 협력 관계를 맺은 지 20주년이기도 합니다. 양사는 뉴스 분야에서 협력하고, 서로 우호를 깊게 해 왔습니다. 지금은 YTN의 협력이 없으면 TBS의 한국 뉴스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의 협력에 마음 속으로부터 감사를 드립니다.

YTN의 20년 역사는 시청자의 신뢰가 없었다면 이루어질 수 없었겠지요.
2011년도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발표를 보면 YTN을 통한 매스미디어 이용률이 한국에서 1위였습니다. YTN은 이 결과를 보고 「전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다」라고 자평했습니다.

또 8년 연속 가장 공정한 미디어에도 뽑혔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뉴스를 전하는 것이 보도의 기본 원칙입니다. 이 기본에 충실했기 때문에 YTN은 대다수 국민의 신뢰를 받는 방송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장래는 낙관할 수 없습니다. 미디어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종합편성채널의 개국이나 다양한 인터넷 상의 정보로 인해 경쟁은 더욱 격해지고 있을 뿐입니다. 경영의 효율화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점은 우리 일본 방송사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시대가 어떻게 변해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신속」 「정확하게」 뉴스를 전하는 보도의 기본 원칙입니다. 그 기본을 잊어버리면 어떤 것을 보도해도 시청자는 외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 같은 사실은 「YTN의 빛나는 역사」가 고스란히 가르쳐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20년 동안 이어져 온 YTN의 보도에 경의를 표하면서, 더욱더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TBS와의 협력 관계도 더욱 탄탄해지기를 바랍니다.

YTN을 통해 세상과 소통한다

이원경 모니터요원

**내가 맡은 뉴스 시간대가 시작하기 5분 전 심호흡을 한다.
편안한 마음으로 뉴스를 보지만 모니터라는 임무에 충실하기 위해
조금 더 날카로운 시선을 모으는 작업이다.**

광고가 끝나고 헤드라인이 나오기 시작하면 오늘의 기사 아이템을 정리한 후 내용과 구성을 체크하며 모니터한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YTN 뉴스를 보는 것이 일상이 되었지만, 그 시간은 내가 세상과 소통하는 시간이기도 하다. 이 일을 하면서 1시간이 채 안 되는 뉴스지만 그 속에는 늘 사람들의 '희로애락(喜怒哀樂)'이 그대로 녹아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지난 시간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역시 세월호 사건 중계이다. 시청자는 24시간 24번을 보면서, 기자들은 위험한 순간을 감수하며 연일 팽목항과 사고 지점에서 생중계를 하면서, 실종자의 생존을 한 마음으로 기원했을 것이다. YTN은 한순간이라도 새로운 소식을 전하고자 어느 뉴스채널보다 더 노력했다. 배를 섭외해 사고해역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소식을 전달해 시청자와 실종자 가족들이 사고해역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해주기도 했다. 타 방송에서 좀 더 자극적인 인터뷰나 속보 전쟁을 해도 평정심을 가지고 가장 정확한 뉴스를 전달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특보 기간 내내 보여주었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이 다소 지루하고 점잖아 보일 수 있지만, 시청자의 한 사람으로 이점은 YTN의 강점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평정심이야말로 시청자들이 YTN의 보도를 가장 공정하다고 믿게 하는 힘의 원천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또한, 전국의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지역적 차별을 최소화해, 시청자가 오늘의 뉴스를 궁금해 할 때 자연스럽게 YTN을 보게 하는 것도 YTN의 장점이다.

하지만 아쉬운 점도 있다. 24시간 보도를 해야 하는 채널 특성 때문인지 모르지만, 뉴스 프로그램마다 특색이 잘 부각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최근의 많은 변화로 개선되어 가고는 있지만, 아쉽게도 아직 YTN 하면 떠오르는 대표 뉴스 프로그램이 없는 것 같다. 그러다 보니 뉴스 아이템에 변화를 줘도 비슷한 기사가 프로그램마다 반복적으로 나온다는 느낌을 쉽게 버리기 어렵다. 뉴스를 진행하는 앵커나 기자가 인기에 연연하는 자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스타 앵커, 기자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본다. 또한, YTN 하면 떠오르는 대표 뉴스 프로그램을 통해 시청자의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시청자의 반응에 일희일비 할 필요는 없지만, 공정한 보도를 넘어 재미있는 뉴스라는 생각을 시청자가 갖게 하기 위해서 YTN 제작진이 먼저 시청자와 적극적인 소통을 시도해 변화를 추구한다면 특색이 있는 뉴스 프로그램의 탄생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YTN 모니터를 하면서 보람도 참 많이 느꼈다. 우리 모니터일이 열심히 현장을 뛰고 취재하는 기자들과, 뉴스를 시청자들에게 전달하는 앵커들의 실수를 잡아내는 일처럼 비춰질지 모른다. 하지만 사소한 실수라도 시청자 입장에서 불편하다고 느끼는 것을 가감 없이 전달하려고 노력하고 그 실수가 수정되고 새로운 뉴스로 다시 전달될 때는 정말 큰 보람을 느낀다. 또한, 개인적으로는 사회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 뒤처지지 않는 감각을 YTN을 통해 충전하는 기쁨이 있다. 적어도 가족과 대화할 때 '엄마가 뭘 알아'라는 말을 듣지 않고 대화의 주체로 당당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준 것은 YTN 뉴스의 힘이라고 믿고 있다.

이제 우리는 생태적 미디어 환경 속에서 빛의 속도로 변하는 미디어를 경험하며 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 과정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 '진실 보도의 힘'이 바로 그것이다.

언제나 대한민국 언론의 중심에서 진실 보도를 위해 애쓰는 YTN이 있기에 시청자들은 오늘도 YTN 뉴스를 통해 세상과 소통하고 있다. 나 또한, 그런 YTN의 한 부분을 책임 있게 만들어 가기 위해 오늘도 TV 앞에 앉아 있다.

4월의 자랑스러운 YTN인 상

• 4월의 자랑스러운 YTN인 상 선정 이유 _ 강성옥 팀장 (기획조정실 인사팀)

이달의 자랑스러운 YTN인 상 특종상의 경우 모두 YTN이 단독으로 보도한 훌륭한 기사들이어서 선정 작업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금상에 선정된 인천 강화 캠핑장 화재 취재 보도의 경우 휴일 새벽부터 1보를 특종 한데 이어 온종일 이어진 상보까지, YTN의 전통적 강점인 속보 기능에 충실했다는 점이 높게 평가됐습니다.
은상에 선정된 10대 가출소녀 성매매와 살해 연속 보도의 경우 단발성 사건이었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사회적 문제점까지 끈질기게 추적 보도했던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공로상은 YTN 방송의 화면 개선을 위해 날밤을 새워가며 애쓴 화면개선점검단의 그래픽 디자이너 6명이 수상하게 됐습니다.

특종상 금상 1건 _ 인천 강화 캠핑장 화재 취재 보도
전국부 _ 홍주예 / 기획제작팀 _ 한동오 / 영상취재1부 _ 김태형 차장 / 영상취재1부 _ 홍성노

은상 1건 _ '10대 가출 소녀 성매매 및 살해' 연속 보도
기획제작팀 _ 한동오 / 사회부 _ 강희경 / 영상취재1부 _ 이승환 차장

공로상 화면 개선 및 서울타워 타이틀 제작 공로
그래픽팀장 _ 정지원 / 그래픽팀 _ 기내경 차장 / 오재영 차장 / 윤 미
화면R&D팀장 _ 범희철 / 화면R&D팀 _ 유영준

금상 수상 소감 / 인천 강화 캠핑장 화재 취재 보도_ 홍주예 (전국부)

YTN의 힘은 생생한 제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느꼈습니다. 한 통의 제보 전화가 하루를 통째로 골고 간 이슈를 선점하게 해줬습니다.
제보는 취재기자의 확인을 거쳐 첫 속보 자막, 첫 전화 연결, 첫 사진 확보, 첫 현장의 생생한 ENG 그림, 첫 중계로 이어졌습니다.
촬영기자 김태형 선배와 홍성노 씨는 현장에서 기민하게 대응해 불이 난 천막이 한눈에 들여다보이는 구도에서 생생하게 화면을 담았습니다.
빠른 제보와 탄탄한 취재진, 20년 동안 촘촘히 쌓아올린 YTN의 저력이었습니다.

은상 수상 소감 / 10대 가출소녀 성매매 및 살해 연속 보도 _ 한동오 (기획제작팀)

발생이라는 나무에서 구조라는 숲을 보려 했습니다. 한 중학생 소녀의 죽음에서, 가출 청소년이 생활비에 허덕이다 성매매의 늪에 빠지는 사회 현상으로 의미를 확장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든든한 YTN 사건팀이 있었습니다.
이대건 캡은 방향을 지휘했고 팀원들은 팩트를 모았습니다.
촬영기자 선배는 치열하게 고민하고 몸으로 부딪쳐 완성도 있는 그림을 만들었습니다
탄탄한 취재 구조 덕분에 단독, 연속보도가 가능했습니다.

공로상 수상 소감 / 화면 개선 및 서울타워 타이틀 제작 공로 _ 정지원 팀장 (그래픽팀)

일을 진행하는데 항상 협력과 지지를 보내주시는 선배, 후배, 동료분들에게 감사하고 죄송합니다.
이 자리에 선 이유를 알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의 노래〉 175×140cm 닥판에 먹과 채색 2005

김병종, 생명의 자연과 아름다운 결을 담다

홍경한 미술평론가 | 경향아티클 편집장

작가 김병종은 변화를 거부하지 않는다. 글과 그림에 경계를 두지 않으며, 전통적인 것과 현대적인 것의 구분에도 자유롭다. 이러한 그의 미적 태도는 다양한 방면에서 드러난다.

〈생명의 노래 – 동마(童馬)〉 73×61cm 닥판에 먹과 채색 1998

〈바보예수〉 148×206cm 화선지에 먹과 채색 1985

〈생명의노래 – 생명나무산수〉 97×162cm 닥판에 먹과 채색 2012

세계 곳곳을 돌며 예술가의 시선으로 인간 삶의 모습을 옮긴 『김병종의 화첩기행』 시리즈로 문학적 역량을 이어가면서 '이름과 넋', '바보예수', '생명의 노래' 연작을 통해 자신만의 미의식을 화폭에 담아온 것이 그 한 예다. 이 둘은 서로 다른 듯하지만 글과 그림으로 세상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려는 작가의 마음만큼은 동일한 무게로 공존하고 있다.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작가활동에 매진해온 김병종은 한국화가로 불리지만 획일적 결을 고집하지는 않는다. 학창시절부터 발군의 실력을 인정받은 그의 시와 소설, 희곡, 미술평론 등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지적 열망을 함축하고(서울대 미대 재학 중 미술평론과 희곡으로 두 차례나 신춘문예에 입선한 경력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화면 속에 녹아 든 우리 것에 대한 고집과 동시대 미술이 추구하는 새로움에 대한 과감한 수용은 김병종의 예술세계를 기름지게 한다. 그리고 오랜 시간 일군 이 고옥한 텃밭에서 지금도 그의 예술은 무르익고 있다.

그가 이런 길을 걸을 수 있었던 데에는 언제나 놓지 않으려 했던 '생명'에 대한 경외와 소중함에 관한 작가의 집념이 놓여 있다. 실제로 그의 그림에는 세계에 대한 근본 원리 및 삶의 본질을 '생명'으로 삼는 작가의 가치관이 배어 있으며 인간 삶의 아름다움을 지향하는 작가의 근본적 태도와 관점이 투사되어 있다. 사물과 풍경을 그렸든, 세계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 또는 예수를 그렸든, 그 무엇이든 그 화두의 근본은 '생명'이라는 것이다.

그의 그림에서 생명은 차별 없이 존재한다. 꽃과 새, 산과 나무, 강과 물고기 등 다양한 생명체들이 병립, 공생할 뿐 생명의 크고 작음, 경중(輕重)과 고하(高下)는 들어있지 않다. 그야말로 생명이란 명사에 '사랑하다'와 '좋아하다'라는 뜻의 접두사 필로(Philo), 지혜라는 의미가 담긴 소피아(Sophia)의 세계(Philosophia)가 화폭 속에 더불어 있는 셈이다. 이는 오래 전 연탄가스로 죽을 고비를 넘긴 후 생성된 것이지만 그 어떤 미물이라도 생명은 귀중하다는 작가의 생명존엄 사상의 증거이며, 현재까지도 그의 예술을 지탱하는 거푸집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처럼 '생명'이라는 가장 보편적이면서도 인간의 근원이 되는 주제를 30여 년 이상 일관해온 김병종. 오늘날 그의 그림 앞에 선 많은 이들은 감동적이라고 말한다. 굳이 논리적 해석을 곁들이지 않아도 무의식의 언저리를 가로지르는 아름다움에 대한 가치를 떠올린다고 진술한다. 물론 이러한 감상의 범주 외에도 그의 작업은 다름을 두려워하는 이들에겐 변화의 촉매가 되고, 시끌벅적한 예술언어로 가득한 시대에 무엇이 예술인가를 자문하는 역할을 맡기도 하며, 우리네 삶을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게 하는 또 하나의 비옥한 세계를 개방함에 틀림없다. 이는 중심을 잃지 않되 수없이 변주되는 표현의 욕망, 일평생 다듬어온 고유한 미의식 탓이 크다.

한편 한국 미술계에서 김병종은 한국화가로 서양의 기법을 과감히 수용하며 한국화를 혁신시킨 인물로 꼽힌다. 추상미술의 전위와 색채미학에 도전하고 예술의 상업화 물결과 기획화, 트렌드에 치우치지 않은 채 자신만의 미학을 구축한 작가로 평가받기도 한다. 지금도 그는 동양 철학의 정신성을 작업의 요체로 흔들림 없는 조형언어를 생성해 온 인물로 기록되고 있으며, 생명에 대한 끝없는 연민과 사랑을 자연과 인간에 버무린 채 독창적인 예술세계를 개간한 예술가로 기억되고 있다. 그리고 그 결과물이 바로 언제나 우리 곁에서 잔잔한 여운을 전파하고 있는 '생명의 노래'라고 할 수 있다.

김 병 종 Kim Byungjong • 서울, 베이징, 파리, 시카고, 브뤼셀, 바젤, 도쿄, 베를린 등에서 20여 회의 개인전을 가졌다. 피악(FIAC), 바젤(BASEL), 시카고(CHICAGO)등의 국제아트페어와 광주비엔날레, 인디아트리엔날레 등에 참가 하였다. 대영박물관, 온타리오미술관, 서울국립현대미술관 등 국내외 저명 미술관에 작품이 소장되어있다. 대한민국문화훈장을 비롯해 미술기자상, 선미술상, 한국미술작가상, 기독문화대상, 대한민국문화예술상 등을 받았다. 화첩기행 등 다섯 권의 저서를 내었고 유가미학사상연구로 철학박사학위를 받았다. 서울대 미대학장, 서울대 조형연구소장, 서울대학교 미술관장 등을 역임하였고 현재 서울대 미대교수로 재직 중이다.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열정앵커 최영주

정리 : 김시호 | 방송작가

스물다섯, YTN에 입사한 순간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왔다. '최영주'라는 이름 앞에 YTN이라는 바이라인을 달고 산지 어느덧 햇수로 13년째. 어릴 적 수줍음 많고 내성적이던 소녀는 방송기자로, 편집부 PD로, 그리고 앵커로 참 많은 변신을 거쳐 지금의 자리에 섰다.

| 협찬 |
장소 / Creta 크레타 스튜디오
www.icreta.com, 02-3142-0811
촬영 / 전경헌 대표

그리고 앵커의 변신을 통해 또 한 번 새로운 변신을 했다. 바로 '록 가수'로 말이다!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그녀의 좌우명처럼 늘 한계에 도전하는 열정 가득한 앵커, 최영주를 만났다.

Q. 사진이 굉장히 파격적이다! '록 하는 앵커' 실제로도 정말 록을 잘하나?

몇 년 전, 사내 Y밴드 객원 보컬로 나서서 활동했어요. 노래 실력은 묻지 마세요. (^^;;)
초등학교 음악 실기 시험, 아이들 앞에서 망신을 당한 적이 있어요. 당시 음악 선생님께서 "넌 노래는 참 아니구나."라며 공개 평가를 내렸는데 그 순간 머리가 하얘지고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었어요. 이게 트라우마가 되어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는 일이 가장 두려운 일이 되고 만 거죠. 때문에 보컬은 저 자신에 대한 도전이었어요. 실제 Y밴드 공연에서 록커로 변신해 내면에 숨겨 놨던 '끼'를 마음껏 분출했더니 거짓말처럼 오랜 트라우마가 싹 사라졌어요. ^^

Q. 어린 시절의 꿈도 앵커였나?

학창 시절 방송반 활동을 했어요. 중학교 때, 학생회장 선거에 나가 연설을 한 적이 있는데 은사님께서 장래에 '앵커'를 해보는 게 어떠냐고 제안하셨죠. 20여년 전, 전교생을 상대로 제 목소리가 처음으로 방송 전파를 탔던 그때가 생생합니다. 그 뒤로 '앵커'라는 직업에 대해 관심을 두고 여러 활동을 하다 보니 실제로 이렇게 '앵커'가 됐네요. 그때 그 시절 선생님께 "어린 시절, 꿈을 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Q. 앵커가 되고 나니 상상 속 앵커 생활과 가장 비슷한 부분, 또 다른 부분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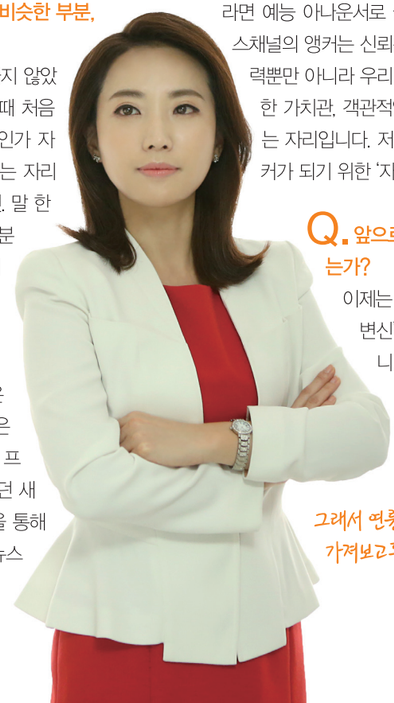
'앵커'라는 자리를 무겁게 받아들였기에 쉽게 도전하지 않았어요. 내공을 쌓기 위해 노력했고 기자 입사 7년 차 때 처음 앵커석에 앉게 되었지만 지금도 제가 진정한 '앵커'인가 자문한답니다. 상상 속 앵커와 비슷한 부분은 '앵커'라는 자리는 생각보다 훨씬 어깨가 무겁고 고독한 자리라는 것. 말 한 마디에 신중해야 하고, 냉정해야 한다는 것. 다른 부분은 생방송이라는 긴장감이 시간이 흐를수록 익숙해질 법한데도 날마다 새롭고 떨리는 일이라는 것.

Q. 일에 있어도 다양한 도전을 즐긴다고?

늘 새로운 일에 대한 갈증 때문에 취재기자로 많은 부서를 돌면서 다양한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앵커로서 또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네요. 지금 맡은 프로그램 〈뉴스 통〉은 그동안 YTN에서 시도하지 않았던 새로운 콘셉트와 형식의 뉴스입니다. 종일 인터넷 등을 통해 시청자들이 많이 접한 스트레이트 뉴스를 확장해 뉴스의 뒷이야기와 해설을 곁들이는 형식이죠. 아직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지만, 분명히 좋은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Q. 앵커 지망생들에게 뼈있는 선배의 조언 한 마디!

자신이 세상 돌아가는 일, 즉 시사에 관심이 있는지 냉철히 판단해 보라! 단지 화려해 보여서 방송을 하고 싶은 거라면 예능 아나운서로 꿈을 키우시길… 특히 24시간 뉴스채널의 앵커는 신뢰감 있는 외모, 정확한 발음과 전달력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를 바라보는 비판 의식, 공정한 가치관, 객관적인 시각 등 내공이 뒷받침돼야 하는 자리입니다. 저 역시 이런 의미에서의 진정한 앵커가 되기 위한 '자망생' 입니다.



Q. 앞으로 또 어떤 '인생의 변신'을 꿈꾸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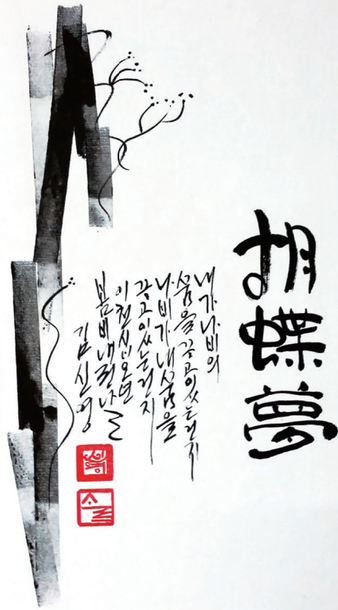
이제는 어떤 '인생의 변신'보다는 '생각의 변신'을 하기 위해 노력하며 살고 싶습니다. 일상의 삶을 바꾸려면 사고의 변화가 가장 중요할 테니까요.

YTN 앵커로서의 꿈은 목잇보다 '인터뷰를 잘하는 앵커'가 되는 것. 그래서 연륜이 좀 더 쌓인다면 나만의 쇼를 가져보고픈 소박한 바람도 꿈꿔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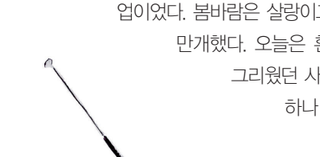
마음을 전하는 손글씨, 캘리그래피

정리 : 김시호 | 방송작가

"글씨를 보면 사람이 보인다"는 말이 있다. 그의 손글씨 작품들은 강렬하면서 한없이 유연하다. 다양한 표현을 한데 담은 글씨처럼 강인함과 섬세함을 동시에 지닌 YTN 사이언스 콘텐츠제작팀 김신영 팀장을 만났다.



'아름다운 서체'로 불리는 캘리그라피. 그가 이를 처음 접한 것은 2009년 '특별기획 한글'을 제작하면서였다. 한글의 소중함을 어떻게 널리 알릴 수 있을까 고민하다 먹으로 훈민정음을 직접 쓰는 장면을 살려 한글의 아름다움을 전하고 싶다는 욕심이 생긴 것이다. 그러던 때 우연히 '귀인'을 만났다. 바로 캘리그라피스트 이상현 씨. '타짜', '해를 품은 달' 등 유명 영화와 드라마의 타이틀 작업을 진행한 한국 캘리그라피의 개척자이다. 그와 '한글 사랑'을 안주 삼아 술잔을 기울이다 손글씨의 매력에 푹 빠지게 됐고, 작년 여름 본격적으로 일반 과정을 배우기 시작했다. 올해는 전문가 과정을 마치고 새김글(전각)까지 도전하고 있다.



"웃자", "아이코", "고마워", "행복해" 등 그의 글씨에는 많은 사연과 다양한 표정이 담겨 있다. 아마도 글씨에 마음을 담았기 때문일 것이다. 처음에는 그냥 취미로 소박하게 시작했지만, 뜻밖에 업무에도 도움이 많이 된다. 붓을 잡고 글씨를 쓰는 순간만큼은 모든 잡념이 사라지고 안정을 얻을 수 있으니 아이디어가 많아지고, 글귀나 글씨체를 끊임없이 창조해야 하는 것도 방송과 많이 닮아있다. 또 동료들에게도 힘이 된다. 사과나무 가지를 형상화한 사과나무 타이틀로, 단 하나뿐인 청첩장 문구로, "나는 PD다" 후배 기 팍팍 살려주는 문구로! 가족들도 이 취미를 반긴다. 아내의 생일이나 기념일, 아이들에게 힘을 주고 싶을 때 하얀 종이와 펜만 있으면 마음을 담을 수 있다.

"언제까지 글씨를 쓰실 거예요?" 마지막 질문에 그는 나이 들어도 오래가는 벗처럼 자신의 손글씨가 세월 따라 농익는 것을 지켜보고 싶다고 담담하게 말했다. 올해는 고마운 분들에게 작은 글씨 한 점이라도 나눠주고 싶어 작은 캔버스에 글씨를 쓰고, 그림을 그리는 작업도 하고 있다. 그리고 미약하게나마 후배들 프로그램에 도움을 주고 싶다는 것. 단지 글을 예쁘게 쓰는 기술이라고 생각했는데 캘리그라피, 손글씨 안에 마음을 담는 작업이었다. 봄바람은 살랑이고, 도로 곳곳 아름다운 꽃이 만개했다. 오늘은 흰 종이와 펜을 준비해 평소 그리웠던 사람에게 정성껏 쓴 좋은 글귀 하나 선물해보는 건 어떤가? 삐뚤빼뚤 못생겨도 마음만은 통할 테니…

내 오랜 친구 라디오처럼

YTN News FM 94.5

당신의 봄은 왔나요?

영화를 통해 마음을 나눕니다

마음으로 읽는 영화음악

이현섭 | 미디어전략실 미디어전략팀

**매주 목요일 저녁,
영화를 주제로 한 이야기가 작은 스튜디오에서 시작된다.
각자의 일, 각자의 삶 속에서도, 매주 목요일이 되면,
나를 포함한 '마음으로 읽는
영화음악' 식구들은 한 자리에 모여
영화와 영화음악에 관한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내기에 여념이 없다.**

마포구 성산동에 자리 잡고 있는 마포공동체라디오(마포FM). 출력 1W에 불과한, 그래서 마포구와 서대문구 일부에만 송출되는 작은 라디오 방송국이다. 우리나라에 소출력 라디오가 도입될 당시 7개의 방송국이 탄생했고 그 중 마포FM은 신촌과 홍대로 상징되는 대학문화, 그리고 인디뮤직, 그리고 이 지역의 다양한 소식들을 담아내며 현재까지 그 역할을 하고 있다. 물론 소출력 라디오이기 때문에 듣는 사람도 적고 피드백도 적은 것이 현실이지만 나와 같은 100여 명의 자원 활동가가 자신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 그리고 이 동네의 이야기들을 자유롭게 담아내고 있다.

처음 시작은 우연이었다. 대학원 시절 우연히 보게 된 한 잡지에서 공동체 라디오를 알게 되었고, 결국 그것이 나를 이 조그만 방송국으로 이끌었다. 처음에는 성우 지망생들과 함께 시각 장애인 대상 프로그램인 '책 읽어주는 라디오'를 제작했었고, 그 이후 내가 좋아하는 영화음악을 주제로 프로그램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에 지금 이 프로그램, '마음으로 읽는 영화음악'을 제작하고 있다. 그렇게 그냥 막연하게 해 보고 싶었던 프로그램을 한다는 생각으로 시작한 것이 벌써 만 4년을 채워가고 있다.
모두가 함께 쓰는 스튜디오이다 보니 녹음 스케줄이 매주 정해져 있다. 우리 프로그램의 경우 녹음 시간이 목요일이라 평일 저녁 시간을 매주 할애해야 한다는 것 때문에 주변에 미안한 마음도 없지 않다. 특히 회식이나 회사 동료들과의 저녁 약속, 각종 모임 등이 방송 일정과 겹치면 부득이하게 빠지게 되는 경우가 다반사다. 그때마다 양해를 구하고 갈 수밖에 없어 미안하고 또 미안한 마음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다.

영화음악 프로그램이라고 나 자신이 영화나 영화음악에 대해 전문가적 식견을 갖춘 것은 아니다. 단지 다른 장르에 비해 조금 더 좋아하고 애착이 있는 것이고, 프로그램을 하면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다 보니 오히려 더 배우는 것이 많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함께 작업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는 점이 내게 가장 큰 자산이 된다. 학원 강사 일을 하면서도 매주 어김없이 원고를 써 보내주는 우리 메인 작가님, 취업 전선에서 뛰고 있으면서도 프로그램을 위해서라면 언제나 달려와 주는 리포터, 미래의 방송진행자를 꿈꾸는 리포터, 그리고 아이 둘을 기르면서도 1시간 반이나 걸리는 방송국까지 와서 방송을 하는 열의를 보여주는, 이제 곧 복귀할 아줌마 디제이까지,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의 열정이 모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다. 또한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마주치게 되는 영화음악 감독, 영화감독, 배우, 일반인까지 다양한 삶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작은 보람을 느끼고 있다.

언제까지 이렇게 방송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른다. 직업이 아니라 단지 좋아서 하는 일이 생각보다 많은 투자와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 또한 안다. 그러나 내가 지금 이 일을 좋아하고 있기에,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 때문에라도 되도록 오랫동안 할 수 있었으면 한다.

라디오를 통해, 다른 사람과 생각을 공유하고 마음을 나눌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내게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다시 생각하게 된다.

자라섬 불꽃축제 2015

변재철 차장 | 문화사업팀

아~ 에든버러. 1947년에 시작된 영국 스코틀랜드 축제이자 세계 최대의 공연축제이기도 한 에든버러 축제에 가 보신 적이 있는가….

YTN의 문화사업 하면 공연, 미술전시, 사진전 등이 떠오른다.

"왜 YTN은 이벤트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 걸까?"에 대한 물음으로 시작된 고민은 YTN의 이름을 걸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축제를 하나쯤 만들어야겠다는 의지로 굳어져 갔다. 이에 지역축제를 제외한 문화콘텐츠만으로 승부하는 축제를 조사하던 중 매년 가을 가평군 자라섬 재즈페스티벌이 눈에 들어왔고 올해로 12년째 접어드는 행사로 관객수가 25만을 넘어 30만을 향해 가는 중이다. '재즈'라는 단일 콘텐츠로 자라섬이라는 공간을 알리며 자라섬의 대표축제가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모방이 창조의 시작이라고 했던가! 재즈페스티벌을 벤치마킹 하기 위해 여러 각도로 자료를 조사하며 인재진 총감독과의 미팅도 가져봤으나 역시 프로다, 소스를 흘릴 듯 말 듯, 흘릴 듯 말 듯하며… 손익분기점 맞추는데 힘들었다는 본인 개인사만 들어야 했다. ㅎㅎ

그러던 중 지난해 자라섬 불꽃축제를 진행했던 주관사와 연락이 닿았고 KBSN과 진행하던 사업을 YTN으로 끌어오기 위해 인고의 시간을 감내하던 중 KBSN의 내부사정으로 인한 틈을 비집고 들어가 YTN과 파트너십을 맺게 되었으나 지난해 세월호 사건과 폭우 등 여러 정황에 적자를 피할 수 없었다 한다.

산 너머 산이라더니… 실무자로서 사업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투자부터 자금 회수를 위한 우선권을 가지려고 수도 없는 협상을 해야 했고 결국 우리나라의 봄을 대표하는 가족축제로 키워보자고 합의를 이끌어 냈다.

원조 격인 자라섬 재즈페스티벌이 6 ~ 7년 만에야 수익을 내기 시작하는 과정을 우리는 좀 더 줄여보고자 2회째인 올해부터 벌써 작은 욕심을 가져본다.

가족 모두 즐기는 축제로 어르신부터 아이들까지 즐길 수 있도록, 공연과 놀이시설, 불꽃축제, 전통무용과 현대무용, 힙합, 프리스타일농구, 먹을거리, 재즈바이올린, 캠핑, 각종 이벤트를 통한 총 1억 원 상당의 경품 증정까지 준비했으며 예상치 못한 안전사고와 화재 등을 대비하기 위해 주관사 측에서도 더욱 엄격한 소방점검을 마쳤다.

자라섬 불꽃축제는 에든버러를 넘는 그 날까지 계속되게 할 것이다….

자라섬이 내게 와서 자란다….

이모저모 YTN

1636 콜피아 설명회 / 3. 26

중도 선사시대 유적의 발굴 기록 및 보존에 관한 상호협력 협약 / 4. 2

일본 웨더뉴스 관계자 간담회 / 4. 2

2015년 한국어뉴스 세계위성방송망 구축사업 협약 / 4. 20

문화유산의 창의적활용 및 보급을 위한 방송 콘텐츠 업무제휴 협약 / 4. 23

YTN-1636 '지역 경제 살리기' 출범식 / 4. 27

지국장 간담회 / 4. 27

YTN NEW FM 개국 7주년 기념식 / 4. 30

NOTICE BOARD

기구 신설 사장 직속 **'비서팀'** 신설 – 시행일 : 2015. 5. 6.字. **인사발령** 총무국 총무팀장 **김진호** – 송 비서팀장 겸직 / 기술국 정보시스템팀 차장 **김한성**, 미디어사업국 매체협력팀 사원 **김솔희** – 송 기획조정실 인사팀 근무 / 마케팅국 마케팅기획팀 사원 **조성애** – 송 기획조정실 재무회계팀 근무 / 마케팅국 마케팅기획팀 사원 **김규남, 김주희**, 네트워크협력팀 사원 **이선미** – 송 마케팅국 통합마케팅팀 근무 / 마케팅국 네트워크협력팀 사원 **남궁용, 박상준** – 송 미디어사업국 기획사업팀 근무 / 기획조정실 인사팀 차장대우 **조남규** – 송 미디어사업국 매체협력팀 근무 / 보도국 경제부 차장 **임상호**, 사회부 사원 **구수본, 이승현**, 편집1부 사원 **강정규**, 편집4부 차장 **박순표** – 송 보도국 정치부 근무 / 보도국 국제부 사원 **신호**, 편집2부 사원 **염혜원**, 편집3부 사원 **김현아**, 편성제작국 제작팀 사원 **양일혁**, 웨더본부 편성제작팀 차장 **유투권** – 송 보도국 경제부 근무 / 보도국 정치부 차장대우 **김준영**, 경제부 차장 **강태욱**, 편집1부 사원 **강진원** – 송 보도국 사회부 근무 / 보도국 정치부 사원 **박조은**, 편집4부 사원 **윤현숙** – 송 보도국 문화사회정책부 근무 / 보도국 경제부 차장 **이승은** – 송 보도국 국제부 근무 / 보도국 정치부 사원 **김웅래**, 사회부 사원 **홍석근**, 편집4부 사원 **박태환** – 송 보도국 편집1부 근무 / 보도국 편집1부 사원 **두수진** – 송 보도국 편집2부 근무 / 보도국 문화사회정책부 차장대우 **박영진**, 편집2부 사원 **한문규** – 송 보도국 편집3부 근무 / 보도국 사회부 사원 **최원석**, 편집3부 사원 **박성화** – 송 보도국 편집4부 근무 / 보도국 사회부 사원 **조임정, 한동오**, 문화사회정책부 사원 **김평정**, 편집4부 사원 **배인수**(YTNDMB 파견) – 송 보도국 기획제작팀 근무 / 보도국 뉴스지원팀 사원 **이상엽**, 영상취재2부 부장대우 **권혁용**, 영상편집부 사원 **권석재**, 글로벌뉴스센터 해외방송팀 차장대우 **김종완** – 송 보도국 영상취재1부 근무 / 보도국 전국부 대전지국 부장 **박동일** – 송 보도국 영상취재1부(세종시) 근무 / 보도국 영상취재1부 부장대우 **이동형**, 영상편집부 부국장대우 **이화용** – 송 보도국 영상취재2부 근무 / 보도국 뉴스지원팀 사원 **이현수**, 영상취재1부 차장 **고민철**, 영상취재2부 차장 **최영욱** – 송 보도국 영상편집부 근무 / 보도국 영상취재1부 사원 **곽영주** – 송 보도국 영상아카이브팀 근무 / 기술국 IT기술팀 차장 **전재성**, 방송인프라팀 사원 **이한배** – 송 기술국 기술기획팀 근무 / 기술국 제작기술1부 차장대우 **이경준** – 송 기술국 방송인프라팀 근무 / 기술국 기술기획팀 부장대우 **유화성**, 송출기술부 사원 **최영훈** – 송 기술국 IT기술팀 근무 / 기술국 기술기획팀 사원 **나영채**, IT기술팀 부장대우 **류근민**, 사원 **송병준** – 송 기술국 정보시스템팀 근무 / 기술국 부국장대우 **김영철**, 기술기획팀 부국장대우 **정창원** – 송 기술국 송출기술부 근무 / 기술국 제작기술2부 차장 **강희택**, 기술연구소 부장대우 **김한철** – 송 기술국 제작기술1부 근무 / 기술국 송출기술부 부국장 **이성호**, 제작기술1부 부장대우 **이승우** – 송 기술국 제작기술2부 근무 / 기술국 IT기술팀 사원 **오종근**, 정보시스템팀 차장대우 **강창국** – 송 기술국 기술연구소 근무 / 보도국 영상아카이브팀 차장 **하성준** – 송 글로벌뉴스센터 해외방송팀 근무

YTN — 말로하는전화 1636

지역경제살리기 캠페인

YTN과 말로하는전화 1636이 함께하는 지역경제 살리기

지역 특산물 50가지 품목을 선정하여 YTN에서 광고하고,
말로하는전화 1636에서 판매해 드립니다.

말로하는전화 1636 전속모델
2014 미스코리아 眞 김서연

지역경제 살리기 캠페인 **참여**를 원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신청**바랍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지자체는 말로하는전화 1636 걸고 **'지역경제살리기'** 말씀해주세요.